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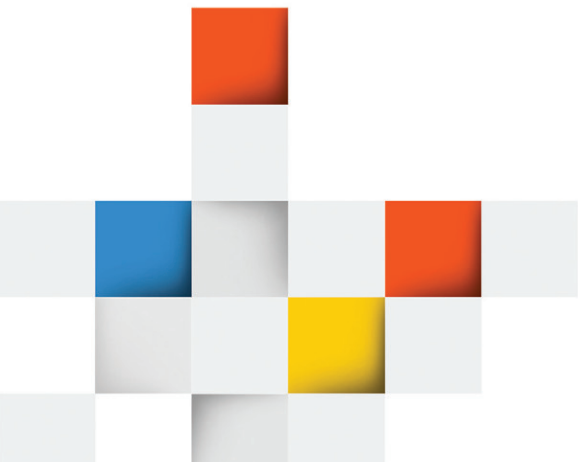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5

<http://sri.kostat.go.kr>

#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청년층 1인가구원은 다인가구원에 비해 스포츠 활동이나 창작적 취미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 활동의 참여가 많고 여가만족 수준도 높다.
-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활동 차이는 남녀와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 1인가구원은 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하였듯이, 이들 가구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인구사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요성이 큰 것이 연령이다. 1인가구의 형성이 생애주기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은 1인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 가구원의 여가활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39세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을 같은 연령층의 다인가구원과 비교하였다.

## 여가활동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4.8%에서 2010년 23.9%로 크게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는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서도 다인가구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는 점에서 이 글은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1인가구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의 복합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증가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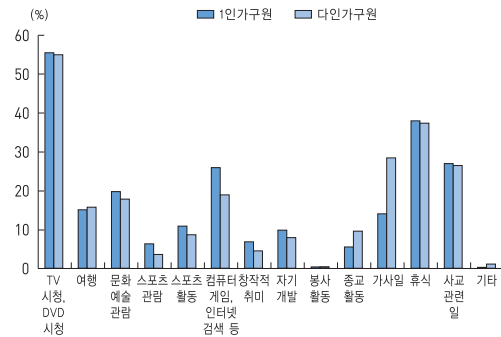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특성을 알아보고에 앞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자.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중 1인가구원의 비율은 10.0%이다. 이 비율은 여성(7.2%)보다 남성(12.7%)에서 더 높고 30대(8.2%)보다 20대(12.2%)에서 더 높으며 농촌지역(8.2%)보다 도시지역(10.3%)에서 더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재학생(14.9%)에서 가장 높고 전문대 졸업자(7.1%)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9.3%)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직(12.9%), 서비스·판매직(12.4%), 전문·관리직(11.2%) 등에

서, 업종별로는 광공업(12.8%)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청년층 1인가구원의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다. 이들의 비율은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35.0%로 가장 높고 100-2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도 18.7%로 꽤 높은 편이다. 다인가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으므로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가구소득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평균(10.0%)의 2-3배에 이르는 1인가구원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1인가구원이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활동을 비교해 보자. 먼저 1인가구원은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으로 TV시청(55.5%), 휴식(38.0%), 사교(27.1%),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26.0%), 문화예술 관람(19.9%), 여행(15.1%) 등을 주로 한다. 1인가구원은 다인가구원에 비해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을 더 많이 하고 집안일을 훨씬 더 적게 한다. 1인가구원 중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6.0%이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4.1%인데, 다인가구원 중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19.0%와 28.5%로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1인가구원은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외에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

람에서도 다인가구원보다 참여율이 높다. 아울러 이들은 다인가구원에 비해 스포츠활동이나 창작적 취미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원이 문화산업이나 스포츠산업의 소비자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VII-11]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주말 여가활동, 2013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주말이나 휴일에 해당 여가활동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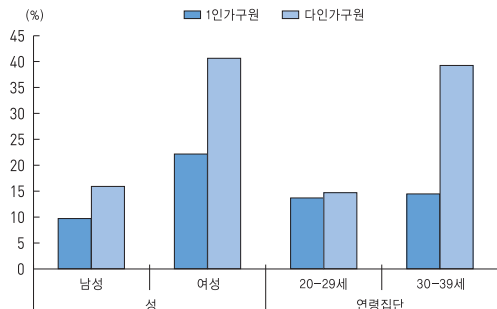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VII-12]는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으로 집안일을 하는 청년층의 비율을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나누어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인가구원의 가사 참여율은 28.5%에 이르면 1인가구원의 가사 참여율은 14.1%에 불과하다.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가사 참여율을 성별 및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인가구원 중 특히 여성과 30대는 각각 40.7%와 39.3%가



주말과 휴일에 집안일을 한다. 이에 반해 1인가구의 여성과 30대는 각각 22.1%와 14.5%만이 집안일을 한다. 여성이나 30대와 달리 남성이나 20대의 경우에는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 사이에 가사 참여율 차이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는 1인가구원이 여가산업의 소비와 적극적 여가활동의 주체가 되는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의 부담이 적은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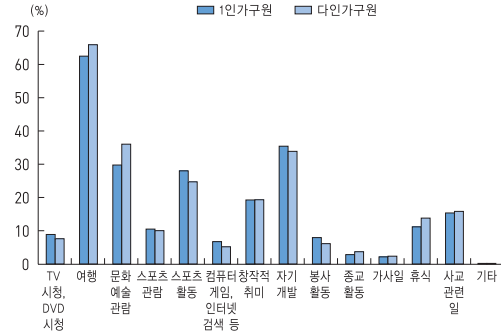
[그림 VII-12]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성 및 연령 집단별 여가활동으로서 가사 참여율, 2013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집단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가사일을 하며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VII-13]은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희망 여가활동을 보여준다. 청년층 1인가구원이 주로 하고 싶어 하는 여가활동은 여행(62.5%), 자기개발(35.5%), 문화예술 관람(29.9%), 스포츠활동(28.0%) 등이다. 1인가구원은 다인가구원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을 덜 하려는 대신에 스포츠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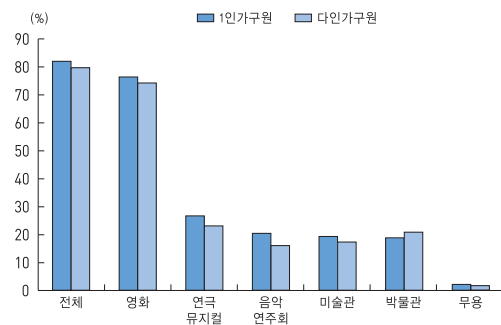
[그림 VII-13]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희망 여가활동, 2013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해당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VII-14]는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문화예술 관람률을 비교한 것이다. 문화예술 공연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비율은 1인가구원이 82.1%, 다인가구원이 79.8%로 두

[그림 VII-14]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문화예술 관람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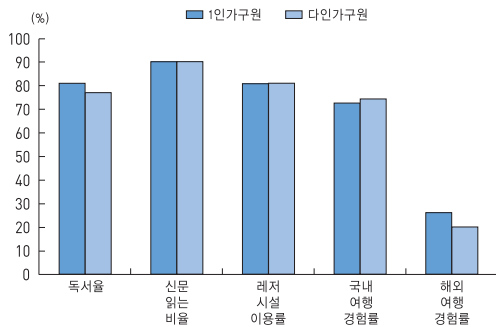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아울러 영화에 이어 연극뮤지컬 관람률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도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다만, 1인가구원은 다인가구원에 비해 음악연주회나 연극뮤지컬과 같은 공연예술 관람률이 조금 더 높다. 그림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음악연주회 관람률의 차이는 여성과 20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시각예술 관람률은 20대의 경우 1인가구원이 다인가구원보다 높지만 30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인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림 Ⅶ-15]는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독서, 신문읽기, 레저시설 이용, 국내외 여행 경험 등을 보여준다. 독서율은 1인가구원(81.1%)이 다인가구원(77.2%)보다 약간 높지만 신문을 읽는 비율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레저시설 이용률과 국내여행 경험률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여행 경험률은 1인가구원이 26.2%, 다인가구원이 20.5%로 두 집단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해외여행 경험률 차이는 특히 여성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여성 1인가구원의 해외여행 경험률은 33.7%에 달하지만 여성 다인가구원은 22.2%에 그친다.

[그림 Ⅶ-15]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독서율, 신문 읽는 비율, 레저시설 이용률 및 국내외 여행 경험률, 2013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 2) 독서율은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 3) 신문 읽는 비율은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임.
- 4) 레저시설 이용률은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레저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 5) 국내여행 경험률은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 6) 해외여행 경험률은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관광, 가사, 업무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여가활동과 사회적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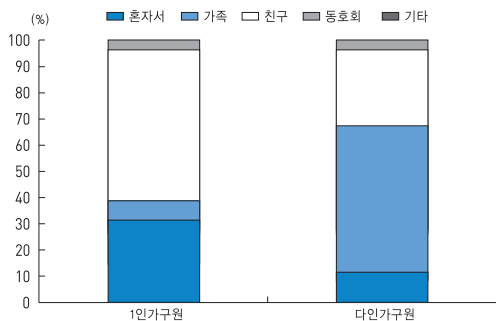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한다. 최근 혼자 즐기는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가활동이 사회통합에 갖는 의미가 크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관련이 있는 여가활동 동반자, 자원봉사, 단체참여 등을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여가활동 동반자

[그림 VII-16]은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활동 동반자를 보여준다. 여가활동 시 1인가구원은 친구와 함께(57.4%) 하거나 혼자서(31.6%)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과 함께(7.2%)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다인가구원은 가족과 함께(55.7%)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은 여가활동 동반자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0대 연령층의 경우,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활동 동반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여가활동을 친구와 하는 비율은 30대 1인가구원이 49.1%에 이르지만 30대 다인가구원은 13.2%에 그치며, 여가활동을 혼자서 하는 비율은 30대 1인가구원이 37.3%에 달하지만 30대 다인가구원은 8.1%에 불과하다.

[그림 VII-16]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활동 동반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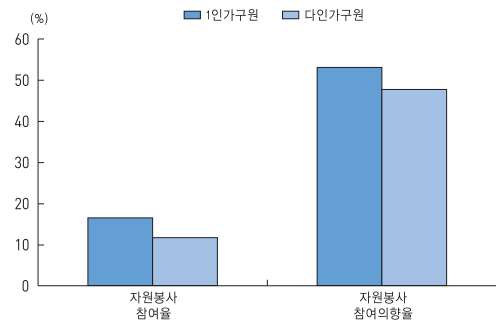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의 동반자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자원봉사와 단체참여

[그림 VII-17]은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자원봉사 참여와 참여의향을 보여준다. 1인가구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6.6%로 다인가구원의 11.9%보다 4.7%p 높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서도 1인가구원의 53.2%가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해 다인가구원의 47.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VII-17]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의향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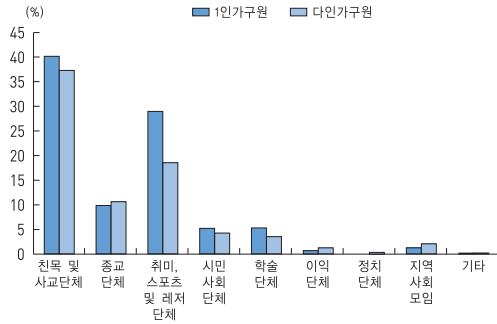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자원봉사 참여율은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자원봉사 참여의향률은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향후 2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VII-18]은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단체참여율을 보여준다.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 모두 친목·사교단체, 취미·스포츠·레저단체, 종교단체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다. 이 중에서 1인가구원(29.0%)은 다인가구원(18.6%)에 비해 취미·스포츠·레저단체 참여율이 특히 높다.

[그림 VII-18]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단체 참여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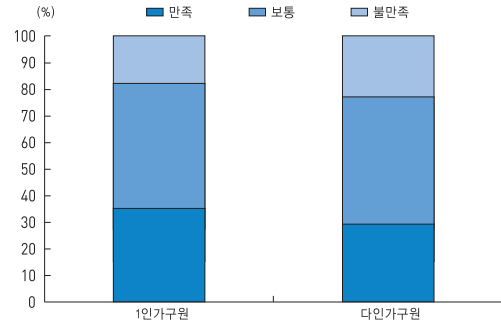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단체참여율은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VII-19]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활동 만족도, 2013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로서,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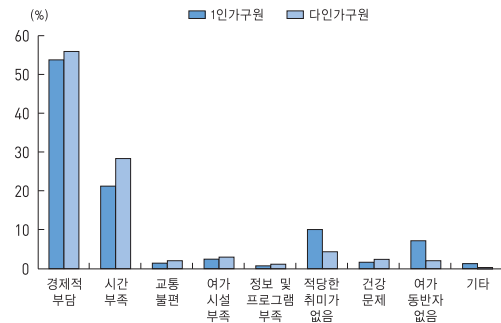
## 여가만족도

마지막으로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를 비교해 보자. [그림 VII-19]에서 알 수 있듯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약간 만족)는 1인가구원이 35.3%로 다인가구원의 29.2%에 비해 높다.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만족도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뚜렷하다. 불만족 비율로 볼 때, 남성의 경우 다인가구원은 21.8%로 1인가구원의 19.2%보다 2.6%p 높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다인가구원이 23.9%로 1인가구원의 15.1%보다 8.8%p나 높다.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 사유를 보면,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 모두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 주요 사유이다. 다만, 다인가구원의 경우 집안일에 대해 부담을 더 갖는 만큼 시간 부족

이 여가 불만 요인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1인가구원의 경우에는 취미 부재나 여가 동반자 부재가 여가 불만 요인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그림 VII-20).

[그림 VII-20] 청년층 1인가구원과 다인가구원의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13



주: 1) 청년층은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청년층 1인가구원 또는 다인가구원 중 평소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주된 불만족 이유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